

서명 미상 필사본 시선집의 자료적 가치

김형술*

1. 머리말
2. 구성상의 특징과 편자 추정
3. 자료적 가치
4. 맺음말

1. 머리말

詩選集은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부터 어떤 시편을 선발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문학 내외적 비평이 가해진 결과물이다. 그런 까닭에 시선집의 가치는 그저 감상할 만한 시 모음집을 넘어선다. 시를 평가할 때 문학적 척도 외에 인격적, 정치적 고려도 아울러 중시되었던 조선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필자는 사천 이병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던 중 이병연의 시가 주요하게 다루어진 필사본 시선집 한 책을 얻어 볼 수 있었다.¹⁾ 이 필사본 시선집에는 42인의 시 563제 742수가 실려 있었는데, 18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으로 선발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기존 시선집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시인들이 선발되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특히 기록으로만 전하던 사천과 중국 문인의 비평 교유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또한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그간 이 필사본 시선집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해낸 몇몇 정보를 학회 지면을 통해 보고하고 이 시선집이 지닌 자료적 가치와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1) 이 필사본 시선집은 사천 이병연의 방계 후손인 이두원씨 소장이다. 본래 가장되어 오던 것은 아니고 선조에 대한 유목을 모으던 과정에서 우연히 구입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귀중한 자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이두원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구성상의 특징과 편자 추정

시선집의 크기는 가로 15.5cm, 세로 24.8cm이다. 겉표지에 책체가 쓰였던 흔적이 있으나 정확한 글자는 파악할 수 없다.²⁾ 겉표지 안쪽에는 본래 두 면이 비어있는 상태로 편집되어 있었는데 오른쪽 내지에 돈을 받고 적어둔 차용 기록이 있다.³⁾ 이 기록은 시선집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 적어도 시선집이 만들어 진 뒤 어느 시점에선가 이 시선집이 한산이씨 집안의 소장이었던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 내지 왼편에는 겉표지에서 확인되었던 ‘知자가 적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직 미상하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오른쪽 면에 두 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다.⁴⁾ 한 편은 정조가 규장각 신하에게 내려준 어제시이고⁵⁾ 한 편은 심양으로 온 조선사신에게 황제가 내려준 시로 추정된다. 기록된 두 편의 시와 시선집과의 관련성은 아직 밝히지 못했다.



그림1. 앞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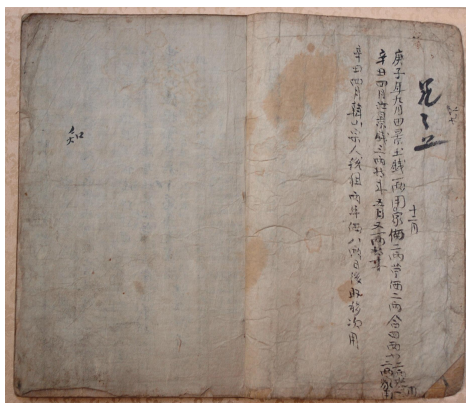


그림2. 표지 내측

- 2) 왼쪽 상단부에 ‘知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 3) 兄之上. 庚子年九月田景玉錢一兩用. 十二月家價二兩苧價二兩合四兩. 辛丑四月汝景錢三兩持來, 五月又一兩持來. 辛丑四月韓山宗人稅租兩年價八兩日後取移次用.
- 4) 文章非貴揀才賢, 每許都俞侍法筵. 牙軸縱橫書載道, 官啣端潔吏如仙. 龍圖故制還依舊, 鳳閣新榮豈讓前. 最喜官居天上近, 禁林深處管風煙. (奎章閣 御製)
迎鑾祝壽陪臣蓋, 按轡蹕道賜顏溫. 問悉國中逢稔歲, 夙知海外得賢藩. 習經史地無貳志, 崇禮義邦有道源. 世守封疆撫黎庶, 於千萬永受皇恩. (瀋陽賜 本國使臣)
- 5) 『弘齋全書』 권5에 <皇壇齋夜宿摛文院召見閣臣有作>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왼쪽 면부터가 시선집의 실제 본문에 해당된다. 오른쪽에 槎川詩評이라는 제목 아래 사천시에 대한 중국문인 魏廷禧의 평이 기록되어 있고 그 좌우로 이병연의 시가 선발되어 있다. 정갈한 해서로 정성스럽게 시를 적었고 시편 중간 중간에 주황색 批點을 찍어 두었다.



그림3. 본문 시작

필사본 시선집을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곳에는 이병연의 시가 절대적인 수로 선발되어 있고 중간 중간 다른 문인들의 시가 실려 있다. 편자는 중간에 삽입된 다른 문인의 시에 주황색 먹으로 저자의 이름(호, 자)를 표시하여 두었다.

필사본 시선집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곳에는 杜機 崔成대의 시가 선발되어 있는데 편자는 작은 글씨로 ‘杜機詩選’이라고 써 두어 구분을 지었다. 최성대의 시가 끝난 뒤에는 다시 이병연의 시가 산견되고 작자를 확증할 수 없는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표지 안쪽에는 蔡濟恭의 <英宗大王挽章>이 적혀 있다.



그림4. 杜機 詩選 시작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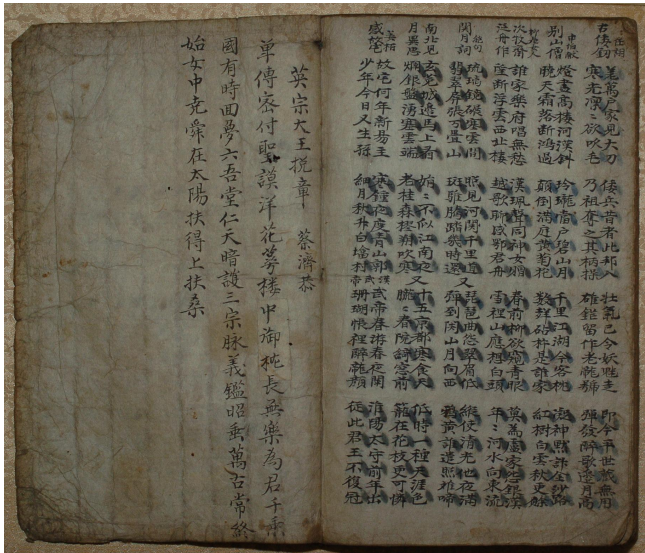


그림5. 필사본 시선집 마지막

필사본 시선집에 선발된 시는 모두 563제 742수이다. 수록된 작가는 李秉淵, 李德壽, 李恒福, 蔡彭胤, 李漵, 宋成明, 李瑞雨, 李匡德, 尹淳, 李相顯, 任珽, 崔守良, 金時瑞, 尹德駿, 李仁復, 朴世堂, 趙裕壽, 曹夏望, 李日躋, 李奎報, 朴閔, 金昌翁, 洪世泰, 吳光運, 姜樸, 李坪, 趙泰億, 李宗城, 趙顯命, 高時彦, 吳載純, 崔成大, 蔡濟恭, 李壽沆 등 35인이고 그 외에 夏顏, 希賢, 醒軒, 山谷, 尹濟州, 鶴洞 등의 인물이 더 있다. 이 가운데 3수 이상의 시가 선발된 작가는 李秉淵(176제 234수), 崔成大(202제 286수), 洪世泰(32제 33수), 吳光運(24제 25수), 李匡德(11제 11수), 姜樸(6제 7수), 蔡彭胤(6제 6수), 趙裕壽(5제 5수), 李相顯(3제 3수)이다.⁶⁾ 이 가운데 이규보와 박은, 이항복을 제외한 인물들은 모두 18세기에 활동한 작가들로 추정되며, 이병연과 최성대의 시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선발한 시편 수가 압도적인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편 필사본 시선집은 시편 배열에 있어서도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비슷한 창작 배경-原韻, 次韻 관계의 시를 포함하여-에서 지어진 시들을 한데 모아 배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日涉亭이라는 정자에서 지은 조유수와 이병연의 시를 나란히 배열한 경우, 조현명이 연행을 갈 때 지어 준 李壽沆, 李坪의 시와 그에 대한 趙顯命의 和韻詩를 나란히 배열한 경우, 함흥 기생 可憐에게 지어준 李匡德의 시와 李秉淵의 시를 나란히 배열하는 경우 등 상당수의 선발 작품들이 이렇듯 작시 상황이 고려되어 편차되어 있다. 개인 문집에서는 次韻詩의 경우 原韻을 부기하는 경우를 다소 볼 수 있지만, 시선집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쉽사리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차 배열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原韻詩와 次韻詩의 관계는 단순한 酬唱의 자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原韻에 대한 작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고도의 비평행위이다. 그런 까닭에 차운시는 원운시와 함께 볼 때, 그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운시와 차운시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동일한 시적 상황, 혹은 동일한 시적 대상을 두고 지어진 서로 다른 작품을 함께 배열함으로써도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이병연의 시와 이광덕의 시를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6) 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현재 인적이 미상한 시편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시편의 숫자는 다소 조정될 것이다.

贈咸山妓

前輩風流有謫官 전배들의 풍류는 謫官에게 남았으니
 樂民樓外海漫漫 낙민루 너머로 바다만 넘실넘실.
 白頭猶見佳人在 다 늙어서도 佳人이 남았음을 보게 됐으니
 解說先朝繡紵冠 지금도 先代 임금님 적 여사를 말하네.

李聖賴詩

咸關女娘滿頭綠 함흥의 아가씨 이제 머리가 허연데
 醉後高歌兩出師 취한 뒤 소리 높여 출사표를 부르네.
 唱到草廬三顧語 노랫가락 삼고초려 대목이 되자
 逐臣清淚萬行垂 쫓겨난 신하 맑은 눈물 하염없이 떨어네.

첫 번째 시는 이병연의 시이다. 필사본 시선집은 이병연의 시를 먼저 실어 놓고 그 아래에 제목도 없이 이광덕의 시를 나란히 배열하여 두었다. 두 시 모두 함흥 기생 可憐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다. 야담에 의하면 이광덕이 젊은 시절 암행어사가 되어 가련을 만났다가 후에 유배객의 신분으로 가련을 다시 만났는데 가련이 그때까지도 이광덕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위리안치된 이광덕을 위해 울타리 너머에서 늘 노래를 불러주며 위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광덕이 解配되어 서울로 돌아간 지 얼마 안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늘 불러주던 노래를 부르고는 자살하였다고 한다. 가련의 자살은 이광덕과 가련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야담식으로 변형시킨 것이고 실제로 가련은 80이 넘도록 살았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위한 일편단심만은 진정이었던 듯하다. 이광덕의 위 시는 이광덕이 유배 갔을 때 자신을 위해 출사표를 불러주던 가련에게 준 시이다.

이병연이 가련에게 시를 지어주게 된 자리는 조현명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현경의 기록⁷⁾에 따르면 조현명이 칠십이 넘은 가련을 한양으로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조현명은 가련을 詩名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병연에게

7) “七十後赴歸鹿趙相國之召，仍往觀高麗故都。望朴淵瀑布而歸。凡前後摺紳章甫之贈詩，悉粧軸以藏之。”(『良翁先生文集』 권1 <咸京滯雨遇老妓可憐賦贈五絕-并序>)

소개해 주었다.⁸⁾ 위에 소개된 이병연의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다. 이병연의 시에는 대상이 되는 인물이 謫官, 繡豸冠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인데, 아래 이광덕의 시를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체성이 확보되게 되었다. 나아가 이병연은 이미 다 늙은 기생을 佳人으로 칭하며 한 사람을 위한 그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필사본 시선집의 편자는 이렇듯 관련되는 두 시를 나란히 배열하는 방식을 통해 사천시의 본의를 잘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필사본 시선집의 편자는 시의 전후에 놓인 맥락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들에 해박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시선집 내 ‘次東圃’라는 시제 옆에 적힌 “天下有名三陟郡, 世間無敵一源詩.”라는 시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옆에 적어둔 시구는 벗이었던 金時敏이 삼척부사로 가는 이병연을 전송하며 지어준 시의 경언이다. 그런데 이병연과 김시민이 이 시구로 함께 이야기 되는 것은 綺里叢話에 나온다.⁹⁾ 기리총화의 이야기는 이병연 이하 팔문장이라는 문인들이 이름 없는 시골 인재에 의해 여실하게 비판받는 내용인데,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된 시구가 바로 김시민이 지어 준 “天下有名三陟郡, 世間無敵一源詩.”라는 구절이다. 시기적으로 시선집의 편자가 기리총화를 보았을 가능성은 적지만 중요한 점은 필사본 시선집의 편자가 이병연과 김시민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는 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민의 호인 東圃 옆에 위 구절을 주황색 글씨로 써 둔 것이다. 이처럼 필사본 시선집의 편자는 시 주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한편, 필사본 시선집의 편자는 시 외적 사실 뿐만 아니라 시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필사본 시선집에 실린 이병연의 <挽菊圃>라는 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병연의 이 시는 사천시초나 사천시선비, 그 밖의 선집에도 실려 있지 않은 시이다. 현재까지 이 시가 확인되는 곳은 姜浚欽의 三溟詩話가 유일하다.¹⁰⁾ 문제는 시의 마지막 구절“別

8) “爾是琵琶女, 誰爲白樂天. 蒼然嶽麓下, 須訪老槎川.”(『歸鹿集』 권3 <又次可憐使之乞詩槎川>)

9) 임형택 역, <『綺里叢話』 소개 한문단편>(『민족문화사연구』 11권, 1997) 참조.

10) 及菊圃沒致輓曰: “南南北北非異居, 望而不見限門閭. 李江夏在竟無面, 宗子相亡方有書. 玄草

人未始伊曾詠, 深樹黃鶯駮蹇驢。”이다. ‘駮’는 ‘업신여기다’, ‘쉽게 말하다’ 등의 뜻을 지닌 글자로 마지막 연의 문맥에 자연스럽지 못한 글자이다. 그런데 필사본 시선집에는 ‘駮’가 ‘歇’로 되어 있다. 마지막 연은 ‘駮’는 ‘歇’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듯 읊은 것이 없었는데, 깊은 숲 피끄리 저는 나귀 쉬게 하네.(別人未始伊曾詠, 深樹黃鶯歇蹇驢.)”가 되어 자연스럽게 된다. 즉, 강준흠은 ‘駮’와 ‘歇’의 비슷한 자형 때문에 誤字를 범한 것인데, 이러한 誤字는 단순 誤記로만은 볼 수 없다. 결국, 삼명시화의 誤字는 이 시선집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 글자 한 자의 작은 문제에 불과할 지라도 그 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필사본 시선집의 편자는 독자적인 비평안의 소유자로 판단되는데, 여타의 시선집, 문집에 실리지 않은 다수의 작품들이 선발되어 있고, 당대 가장 영향력이 컸던 三淵 金昌翁의 시가 1수 밖에 실리지 않은 반면, 시선집에 널리 선발되지 못했던 李垺¹¹⁾같은 인물의 시가 선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작품마다 신중하게 찍힌 관주점 등으로 편자의 비평안을 가늠할 수 있다.

시에 대한 해박한 견문과 정확한 이해, 독자적 비평안을 지녔던 시선집의 편자. 어떤 인물이 이러한 시선집을 만들었을까? 다행히도 편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시선집 안에 마련되어 있었다. 시선집에는 편자의 ‘王母’와 관련된 시가 제법 선발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현명이 지은 <豊原相公挽王母>라는 작품이 시선집에 실려 있어 王母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현명의 문집에도 실려 있는 이 시의 제목은 <韓監司配周夫人輓>

沈潛終病汝, 白頭淫軼孰刪余. 別人未始伊曾詠, 深樹黃鶯駮蹇驢.”

11) 李垺은 자가 對山 또는 載山, 號가 芸齋로 德水人이다. 高棟의 唐詩品彙와 李敏求의 唐律廣選이 지닌 장단점을 보완하여 『唐律精選』이라는 책을 만들 만큼 시에 대한 감식안이 높았으며 李秉淵은 <敬題芸谷先生遺稿後>에서 이평의 『史記』 열독을 특기하였는데, 『史記』를 열독한 것으로 이름 높은 栢谷 金得臣과 東溟 鄭斗卿보다 오히려 이평이 더한 바가 있으며 그런 까닭에 문장의 성취가 이들 大家와 나란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洪重聖은 이평은 莊子와 司馬遷를 대단히 좋아하여 수천, 수만 번을 읽었기 때문에 그 문장은 깊은 근원에서 나오는 기세가 성대한데, 문장의 자체로운 변화는 장자에서 얻었고 雅健하고 俊逸한 것은 사마천에서 얻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평의 시는 성당의 시를 종주로 삼고 李夢陽, 王世貞, 李攀龍의 特長까지 아울렀다고 평가하였다. 이평의 문집 『芸齋遺稿』에는 이병연과 홍중성이 그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다. 이로써 편자의 王母는 감사를 지낸 韓配周의 아내였고, 이로써 곧 시선집의 편자는 한배주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배주는 본관이 淸州로 충청감사를 지낸 인물이다. 夫人 高興柳氏와의 사이에서 韓師百, 韓師萬, 韓師億 세 아들을 두었고 한사백은 韓光顯을, 한사만은 韓光烈, 韓光勳을, 한사억은 韓光瓚, 韓光璋, 韓光理를 낳았다.¹²⁾ 이러한 가계를 염두에 둘 때, 이 시선집의 편저자는 韓光顯, 韓光烈, 韓光勳, 韓光瓚, 韓光璋, 韓光理 중의 하나로 압축될 수 있다. 여섯 인물 가운데 앞서 보았듯 시에 대한 재능과 정열이 돋보이는 인물을 찾기 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던 중 韓光璋¹³⁾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었다.

한생 광위가 그의 아내 유인 정씨의 상을 당해 슬퍼함이 지극하여 죽은 아내를 애도하는 시 수십 편을 지었는데 그 말이 구슬프게 뼈 속을 찌르니 읽는 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나만은 한생이 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음을 의아해 하였다. 시란 성정의 바름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한생의 슬픔은 상하게 하는 것을 그만 두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내가 한생의 부친 安陰公을 만나 물었더니 공이 한식하며 말하길, “우리 아이인즉 심하지만 우리 며느리의 어젊은 실로 잊을 수가 없소이다.”하였다. 그에 또 한생의 형제와 자질들이 孺人을 애도하여 쓴 글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형수를 곡하는 것이 누이를 곡하는 것과 같고 속모를 곡하는 것이 자기 어머니를 곡하는 것과 같았으니 효성스럽고, 우애롭고, 자애롭도다! 부인의 덕이 더할 수 없구나! 나는 이에 한생의 슬퍼함에 까닭이 있음을 알았다. 한생은 또 스스로 말하길 성품이 시 짓기를 좋아하여 매일 밤이면 여러 벗들과 문주회를 열곤 하였는데 (…중략…) 내가 안에서 걱정이 없으면 마음껏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유인의 도움 때문입니다.¹⁴⁾

12) “夫人高興柳氏, 通德郎諱贊女. 婦德克備, 別有誌, 稱未亡三十三年甲子七月二十二日終. 年八十六. 從公葬, 同墳而異槨. 洪州龍池洞負兌之原. 舉三男二女, 男師百生員, 師萬進士, 師億佐郎. 女崔昌會注書, 趙載運. 側出男師絳, 師慶. 女崔亮大. 孫男光顯進士, 女朴師運, 趙健彬, 師百出也; 男光烈進士, 光勳, 女尹光紹修撰, 師萬出也; 男光瓚, 光璋, 光理, 女朴弼遜, 曹命兆. 庶子光達, 師億出也.”(『歸鹿集』卷16 <觀察使韓公神道碑銘>)

13) 韓光璋(1715~1794)의 字는 儒珍, 號가 網菴으로 1794년 壽職으로 僉知中樞府事に 제수되었다. 자세한 생애는 아직 미상하다.

14) “韓生光璋喪其配鄭孺人, 哀甚. 爲悼亡詩屢十篇, 其言悽愴刺骨, 讀者流涕, 余獨怪夫生深於詩. 詩者, 欲得性情之正者也. 生之哀不已傷乎? 余遇生之大人安陰公, 問之, 公唏噓曰, “吾兒則過

위 글은 조현명이 한광위의 죽은 아내를 위해 쓴 묘지명이다. 죽은 정씨 부인을 애도하는 글인데 자못 강조되어 있는 것은 시 짓기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몰두하는 한광위의 모습이다. 아내의 죽음에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수십 편의 시로 표출하고, 아내의 고마웠던 점을 떠올리며 그 덕에 내가 시에 肆力을 다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 이는 확연한 시인의 품모라 할 수 있다. 이 기록만으로 편자를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한다.

3. 자료적 가치

이상에서 필사본 시선집의 체제와 구성,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적인 면을 살피고 편자를 추정해 보았다.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 필사본 시선집이 지닌 자료적 가치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필사본 시선집이 지닌 자료적 가치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이 필사본 시선집에 의해 사천과 중국 문인과의 문학 교류를 증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병연의 시가 중국 문인에 의해 품평을 받았다는 기록은 사천시초 발문에 나오는 홍낙순의 글¹⁵⁾과 청장관전서에 기록된 이덕무의 글¹⁶⁾이 전부였다. 그런데 두 글 모두 조선문사들의 일방적 기록이며, 구체적 인물이 언급되지 않아 다소 공허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필사본 시선집의 기록을 통해 山東人 魏廷喜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파악할 수 있고 비평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矣, 吾婦之賢, 誠不可忘也。” 既又得見生兄弟子姪之誄孺人者, 其哭嫂如哭姊妹也, 哭猶母, 如哭已母也, 既孝矣, 既友矣, 又既慈矣. 婦人之德, 莫尚焉. 余於是, 知生之哀有以也. 生又自言性喜爲詩, 日夜與諸士友爲文酒會, 一略一我無內顧憂, 而得肆力爲詩者, 皆孺人之助也.”(『歸鹿集』 권15 <孺人鄭氏誌銘>)

15) “江南文士見之, 歎曰, 諷之大雅, 出唐入宋, 明以後無論也.”(『跋』, 『槎川詩抄』)

16) “槎川嘗送其詩于中國, 評批而來. 趙后溪裕壽, 送一絕求見曰, “中州集不附高麗, 未遠搜羅恨裕之. 聞道東詩初入選, 後金詞伯更爲誰.”(『青莊館全書』 권35 「清脾錄」 4 <槎川詩入中國>)

槎川詩評

여러 체의 시를 보니 高妙하기도 하고 豪肆하기도 하고 총담하면서 고결하기도 하고 화려하면서도 청신하여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비록 간혹 글자의 쓰임이 거칠고 구절이 너무 가벼운 곳이 있지만 그러나 왕왕 古趣가 왕성하게 일어나니 이것은 지은 자의 대개일 것이다. 매 수를 따라 자세히 비평을 가하고 싶지만 삼가 오랫동안 사귀어 없으니 어찌 감히 당돌하게 할 수 있겠는가!
산동 위정희가 평하다.¹⁷⁾

소문만 무성했던 사천시에 관한 중국 문인의 실제 비평 기록이다. 아울러 최근 이와 관련한 조선 측 자료도 새로 발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일찍이 청나라로 가는 사신의 행렬에 자신의 시 한 권을 초록하여 역관에 게 주어 중국의 안목 있는 자에게 보여 주도록 하여 그 비평을 얻어 돌아올 수 있었다. 역관이 연경에 가서 당시 최고의 인물을 찾아 물으니 모두 다 산동 위정희를 추천하였다. 위정희가 당시 연경에 머무르고 있어 그 시권을 보여 주니 위정희가 비평을 가하였는데 稱賞하는 말이 대개 은미한 뜻을 띠었다. 그 가운데 이병연의 ‘새가 원기 속으로 날아드네(鳥飛元氣中)’라는 한 구절을 위정희는 대단히 칭찬하였다. 위정희 또한 그가 지은 별록 한 편을 돌아가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병연 또한 비평을 가하여 돌려보냈다. 이병연은 한 수 한 수 탄복하였는데 그 가운데 위정희를 가장 칭찬한 경구는 ‘달빛 환한데 갈가마귀 깃든 나무, 하늘 행한데 귀뚜라미 우는 계단.(月白烏鴉樹, 天空蟋蟀階.)’이었다고 한다.¹⁸⁾

17) 槎川詩評

觀諸體詩, 或高妙, 或豪肆, 或冲澹而峻潔, 或藻麗而清新, 无美不備, 雖間有字粗句率之處, 然往往古趣橫生, 此作者之大概. 若必欲逐首細加雌黃, 異無久故之交, 何敢唐突乃爾.

山東 魏廷喜 評

- 18) “嘗因赴燕使臣之行, 錄其詩一卷, 付之譯官, 使示海內具眼者, 得其批評而還. 譯官之燕, 尋問當今第一人, 咸推山東魏廷喜. 魏方在燕都, 以其卷示之, 魏加批評, 有褒有貶, 稱賞之語, 多帶微意. 其中李之‘鳥飛元氣中’一句, 魏亟稱之, 魏且以其所作別錄一編, 托以歸示, 李亦爲評抹而歸之, 李一一嗟服, 其最所稱魏之警句, ‘月白烏鴉樹, 天空蟋蟀階’云.”(『詩話彙成』 권14)

위 기록이 새로 발견되면서 이병연과 위정희의 비평 교류는 한층 더 구체적인 사실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 문사와 중국 문사 간의 문학 교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문학 행위였는데 대체로 중국 사신의 요구에 의해서, 조선의 문인이 조선의 시를 선발하여 중국 문인에게 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역대 조선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선집이 아니라 문인 개인의 시를 모아 교류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문학 교류를 한층 능동적이고 문학 본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바로 개인 문인들 간의 비평 교류였다. 그런데 李秉淵과 魏廷禧 간에 이루어진 비평 교류는 조선의 문인이 직접 자신의 시를 모아 중국 문인에게 보인 아주 이른 시기의 것이다. 허균이 조선에 사신 온 朱之蕃에게 자신의 누이 蘭雪軒의 시를 모아 전한 이래 後四家의 『韓客巾衍集』이 나오기까지 조선 문인들에 의한 능동적 교류 행위는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이병연은 이 자신의 시를 모아 연행 가는 사신단을 통해 자신의 시를 중국 문인들에게 알리려 했던 행위는 이런 점에서 의의가 남다른 것이다. 또한 이병연과 위정희의 비평 교류는 後四家를 비롯한 후배 문인들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병연의 시가 중국으로 소개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기사화한 인물이 바로 이덕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요컨대 이 필사본 시선집은 아주 이른 시기 조선 문인에 의해 이루어진 능동적인 비평 교류를 증거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필사본 시선집이 가지는 두 번째 자료적 가치는 병세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아주 이른 시기의 저작이라는 점이다. 이 시선집은 尹心衡의 『並世集』은 물론이요 1797년 완성된 이규상의 『並世才彥錄』보다도 앞선다. 시구를 선정하는데 포함된 이규보, 박은, 이항복을 제외하면 선발된 작가들은 대개 17세기 중반 이후 태어나 18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대체로 시선집은 신라의 최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당대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옛 시인들을 배제하고 동시대 시인들을 대상으로 詩選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러한 시 선발 방식은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작성된古今에 대한 상대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이 필사본 시선집은 이러한 병세의식이 표출된 아주 이른 시기의 저작이라는 점에 그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필사본 시선집이 가지는 세 번째 자료적 가치는 당시 문인들 간에 이루어졌던 詩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문학사에서 흔히 언급되지 않는 인물들의 작품들이 선발되어 있고, 더구나 그러한 시들이 일정한 맥락 속에 병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단편적인 작품 정보 외에 폭넓은 시교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가령, 이 필사본 시선집에 실린 이병연의 <緜花次韻>이라는 시는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은데, 金令行의 彌雲遺稿에 실려 있는 <槎川剪彩爲花, 逢人輒曰紅桃, 余亦見欺賦詩矣. 今知其假, 又寄一絕要和>¹⁹⁾와 짝을 이루어 시교의 모습을 보다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당색이 달랐던 이병연과 강박이 편자로 추정되는 韓光瑋의 조모 생일날 같은 운자로 지은 시를 남기고 있다는 점²⁰⁾ 등 또한 당대 시인들 간의 교유에 대한 보다 확대된 시야를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서명 미상의 필사본 시선집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하였다. 韓光瑋가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시선집은 槎川 李秉淵과 杜機 崔成大의 시를 주축으로 18세기 문인들의 시를 집중적으로 선발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선발 문인들의 면면을 볼 때 黨色에 구애됨이 좋은 시를 기준으로, 즉 문예성을 기준으로 시선집을 꾸미려 한 의식을 볼 수 있다. 三淵 金昌翁과 杜機 崔成大와의 교유가 일찍이 당색을 넘어선 詩交를 보여준 바 있거니와 槎川 이병연 또한 남인 문사 姜樸, 權萬 등과 詩交를 한 바 있으며, 심지어 그런 교유로 인해 비판²¹⁾을 받기도 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역으로 당시 당색이나 신분에 구애됨 없이 순수 문예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문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필사본 시선집 또한 그러한 의식의 소산으로

19) “蕉影桐陰恣絕奇, 石盆何以假花爲. 隋園剪彩君休詆, 可笑吾儂却見欺.”(『彌雲文稿』 권2)

20) 같은 운자로 시를 지었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자리에서의 수창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일잔치에서 지어진 시라는 점에서 교유의 가능성을 보다 높게 접칠 수 있다.

21) “勿論彼此尊賤, 有代撰有酬應, 或以是短之.”(<李秉淵>, 『野乘』 20책)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시선집에 선발된, 그러나 그 인물의 자세한 정보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시선집이 당대 문인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창작 양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선집에 선발된 시와 선발 문인의 문집을 보다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이병연의 시집을 대상으로 비교하는데 그치고 말았는데 후속 논문을 통해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고자 한다.

<부록> 필사본 시선집 소재 시 목록

제목	작가	제목	작가
3東翁	李秉淵	宣川金將軍墓	洪世泰
心事	李秉淵	直中送人	李秉淵
延豊雜詠(6首)	李秉淵	內水岾谷中	李秉淵
花園絶句(3首)	李秉淵	靈珠寺出洞	李秉淵
午雨	李秉淵	素沙(2首)	李秉淵
江行(2首)	李秉淵	山路	李秉淵
關王廟(8首)	李秉淵	發金川	李秉淵
在縣偶吟(2首)	李秉淵	楓亭(2首)	李秉淵
招友	李秉淵	向神光寺	李秉淵
早發(2首)	李秉淵	入海州	李秉淵
述其言贈忍師	李秉淵	村人射會	李秉淵
盆梅二十絶	李秉淵	浦村	李秉淵
鷄鳴一首	李秉淵	秋聲	李秉淵
鷄四絶	李秉淵	次東圃	李秉淵
題畫一首	李秉淵	向中臺	李秉淵
四月初始見杏花	李秉淵	梅竹同盆	李秉淵
四月梅	李秉淵	小雨	李秉淵
村舍早發	李秉淵	傷逝奉赤岸	미상
拜先山六絶(6首)	李秉淵	又一首	미상
伽倻山石門	李秉淵	山齋獨宿	成夢良
野行	李秉淵	夏日田家	미상
禾積淵	李秉淵	古都	李秉淵
松澗	李秉淵	直中寄巷東	李秉淵
抱川道中	李秉淵	挽少年	李秉淵
金剛路中	李秉淵	會葬桂山	李秉淵
宿通溝	李秉淵	寄人	李秉淵

角巾亭	李秉淵	雙嶺中行	李秉淵
觀日出	李秉淵	出海倉	李秉淵
圓通洞	李秉淵	挽人	李秉淵
挽姜主簿	李秉淵	赤岸梅詩	李相顯
寄痴翁(2수)	李秉淵	耳聾	미상
寒夜	李秉淵	微雨後山花盡開	미상
送鄭處士東歸	李秉淵	鐵塲次牧齋桂塲韻(7수)	미상
聞公退除命次韻	李秉淵	駱峰大君宮	崔守良
分路清淮	李秉淵	清風溪金氏亭	李相顯
寄邊老	李秉淵	赤岸蓮詩	李相顯
贈張老	李秉淵	제목 없음	蔡彭胤
贈石老	李秉淵	제목 없음	蔡彭胤
李遂初夜訪	李秉淵	제목 없음	雲谷
悼鷄(李松谷)	李瑞雨	제목 없음	미상
輓人(松谷)	李瑞雨	제목 없음	미상
織布(松谷)	李瑞雨	제목 없음	金時瑞
應製(李仁老)	李德壽	제목 없음	夏顏
제목 없음(恩窩)	蔡彭胤	제목 없음	希賢
제목 없음(白沙)	李恒福	白下挽朴乃貞詩	尹淳
春日偶題(李老泉)	李漵	李老泉謫洪陽夢趙宋二學士	李漵
제목 없음	宋成明	제목 없음(李聖賴)	李匡德
제목 없음	李匡德	任聖方送人之燕詩	任珽(巨齋)
제목 없음	李匡德	제목 없음	趙泰億
제목 없음	李匡德	제목 없음	
제목 없음(獄下)	李秉淵	李匡德, 趙顯命, 李相顯의 聯句	
九盤(活埋菴)	李秉淵	제목 없음	미상
玉流洞	李秉淵	제목 없음	미상
途中雜詠(2수)	李秉淵	제목 없음	蔡彭胤
金陵途中	李秉淵	제목 없음	蔡彭胤

제목 없음	尹德駿의 시구	제목 없음(李聖賴)	李匡德의 시구
제목 없음	尹德駿의 시구	菊(活菴詩)	李秉淵
제목 없음	李仁復의 시구	出雲亭	李秉淵
제목 없음	朴世堂의 시구	挽人	李秉淵
제목 없음	미상 시구	淸心寺題詩	李秉淵
제목 없음	미상 시구	合江亭	趙裕壽
제목 없음	미상 시구	練光亭	金昌翁
제목 없음	李匡德	滿月臺	洪世泰
제목 없음	미상 시구	善竹橋	洪世泰
제목 없음	趙裕壽의 시구	藪村	洪世泰
제목 없음(聖鍊調甲山時作)	李匡德의 시구	西齋	洪世泰
제목 없음	李匡德의 시구	雙栢亭	洪世泰
제목 없음	李匡德의 시구	廣石洞	洪世泰
제목 없음	曹夏望의 시구	秋園卽事	洪世泰
제목 없음	李日蹄의 시구	九日對雨	洪世泰
제목 없음	미상 시구	至夜作	洪世泰
제목 없음(杜相七歲作)	미상 시구	題人山居	洪世泰
제목 없음	미상 시구	和人遊東湖韻	洪世泰
제목 없음(杜相十三歲作)	미상 시구	秋園感興	洪世泰
제목 없음	미상 시구	冬朝卽事	洪世泰
제목 없음(무명씨)	미상 시구	滿月臺歌	洪世泰
제목 없음(新昌)	미상 시구	瓮津歌(3수)	洪世泰
제목 없음	미상 시구	春意	洪世泰
제목 없음(李相國)	李奎報의 시구	望海寺九日	洪世泰
제목 없음(挹翠軒)	朴闇의 시구	大機村舍	洪世泰
제목 없음	미상 시구	秋盡日登海山	洪世泰
제목 없음	朴世堂의 시구	排憫	洪世泰
제목 없음	李匡德의 시구	諸作堡浦漁舍	洪世泰
제목 없음	미상 시구	東屯曉發	洪世泰

寒食	洪世泰	賀李相	吳光運
木岩店舍	洪世泰	別豊原之燕(叔謙詩)	李壽沆(字叔謙)
望南漢山城有感	洪世泰	別豊原之燕	李坪
雨中遣興	洪世泰	和詩	趙顯命
泐下坪	洪世泰	挽嚴侍郎(2句)	姜樸
驪江旅舍	洪世泰	別家巖	姜樸
贈人	洪世泰	제목 없음	蔡彭胤
閒居遣興	洪世泰	過開府	崔成大
差祭漢江得雨志喜	洪世泰	제목 없음	崔成大
日涉亭	趙裕壽	送人之遠	崔成大
日涉亭	李秉淵	贈咸山妓	李秉淵
紗籠梅閣	趙裕壽	제목 없음	李匡德
紗籠梅閣	趙裕壽	挽李君美	趙顯命
寄尹臺(嶽下作)	秉淵	送李尙書(2句)	李德壽
送西洲之鏡浦江陵郡	李秉淵	送李西堂	미상
題四寬亭(活埋菴詩)	李秉淵	寄外孫女	趙龍州의 孫
寄北州亞使(嶽下詩)	李秉淵	答蔡處士	李秉淵
贈寧邊使君(嶽下詩)	李秉淵	挽王母	李秉淵
挽菊圃(嶽下詩)	李秉淵	挽王母	李秉淵
挽曹季明	李秉淵	挽王母	吳光運
又一首	李秉淵	挽王母(2句)	吳光運
挽申校理	姜樸	北伯驥章	吳光運
哭子墓	姜樸	挽李西堂(4句)	吳光運
賀錦平尉	吳光運	題四寬軒(4句)	李秉淵
賀錦平尉	李秉淵	題四寬軒(4句)	曹夏望
寄許臺	曹夏望	題四寬軒(4句)	醒軒
送西洲子	李坪	題四寬軒春望詩	李坪
題鏡浦臺	曹夏望	題四寬軒春望詩	曹夏望
過龍溪書院	李宗城(字子固)	題四寬軒春望詩	山谷

題王母挽(2首)	省齋 高時彥	李壽長挽	吳光運
王母挽詞	尹濟州(미상)	錦平尉賜几杖宴韻	미상
王考挽	鶴洞(미상)	沈景先挽	吳光運
題篝燈	吳光運	送洪蒼厓赴燕詩	吳光運
次菊圃	吳光運	題舊題製燈篝	吳光運
次蒼崖	吳光運	重陽奠觀兒哭題	미상
除夕展墓	吳光運	夕座聞砧有感	吳光運
慰菊圃	吳光運	風雪臥想臥龍岡物色	미상
冷節立碑	吳光運	宿大興早起口拈	미상
園臯春眺	吳光運	松都立春前夜	미상
次臥仙堂	吳光運	瀑布	李秉淵
原韻	蔡彭胤	鶴嶺	李秉淵
次韻	趙裕壽	還峽	李秉淵
次韻	曹夏望	戰場	李秉淵
嶽下贈紫隱詩	李秉淵	葛洞	李秉淵
藥山贈綱齋詩	吳光運	渡通溝	李秉淵
西洲贈一軒詩	曹夏望	內水帖	李秉淵
菊圃題金剛錄	姜樸	隱身臺	李秉淵
西洲自題楓岳錄	曹夏望	楸池嶺	李秉淵
豐原相公挽王母	趙顯命	仙遊洞	李秉淵
王母啐席詩	李秉淵	舍人岩	李秉淵
王母啐席詩	姜樸	山村	李秉淵
王母啐席詩	曹夏望	馬忽失路	李秉淵
王母啐席詩	吳載純	松楸感懷(2首)	李秉淵
四寬八景(8首)	李秉淵	西州道中	李秉淵
夢玄溪	吳光運	愍忠祠	李秉淵
山路作	吳光運	狽麟驛	李秉淵
春日有感	吳光運	至覺爽泉	李秉淵
蘧齋挽	吳光運	夜來風雨	李秉淵

向神光寺	李秉淵	送人之縣	李秉淵
銀川道中	李秉淵	秋雨	李秉淵
渡螺川	李秉淵	次人有寄	李秉淵
發達倉	李秉淵	路中	李秉淵
水營	李秉淵	淇樓別思	崔成大
郡後泉石	李秉淵	獨遊感題	崔成大
達倉途中	李秉淵	送李子湖中	崔成大
峽行	李秉淵	初逢申周伯	崔成大
次唐人韻	李秉淵	梧館同從	崔成大
送人之官	李秉淵	憶李子	崔成大
綵花次韻	李秉淵	馮高莫眺	崔成大
梅花五律(5首)	李秉淵	渡江	崔成大
觀奕(2首)	李秉淵	京都別周伯	崔成大
觀博(2首)	李秉淵	湖南北歸	崔成大
喫飯	李秉淵	和從叔公弼	崔成大
罔寺	李秉淵	送李吏部赴燕(2首)	崔成大
嶺路	李秉淵	早發主屹關	崔成大
店中	李秉淵	縣齋幽思	崔成大
武陵溪盤石	李秉淵	出遊	崔成大
鶴巢臺歇脚	李秉淵	冬青鷓鴣	崔成大
佛影寺(2首)	李秉淵	經貂都	崔成大
佛影寺路中	李秉淵	古雜曲	崔成大
白雲臺	李秉淵	古艷雜曲(7首)	崔成大
楊州途中	李秉淵	新聲艷曲(5首)	崔成大
次桃源宰	李秉淵	感小桃妍發	崔成大
僑居次韻	李秉淵	寄申周伯	崔成大
梅竹同盆	李秉淵	賦遠山	崔成大
贈人	李秉淵	清風郡閣	崔成大
好笑	李秉淵	永春南窟	崔成大

隱舟岩諸勝	崔成大	水鄉舊墅日漸凋弊	崔成大
龜島仙巖諸勝	崔成大	致思	崔成大
將赴峽邑戲出	崔成大	述湖中景(3令)	崔成大
廻溪坐石	崔成大	野眺	崔成大
答吳侍郎寄詩(2令)	崔成大	湖館雨夕	崔成大
喜周伯枉駕	崔成大	山寺見異鳥	崔成大
送冬至使李仁老(2令)	吳光運	題梧館壁	崔成大
送信使之日本	李東運	梧館有懷	崔成大
送著述官(2令)	崔成大	寄淵翁	崔成大
送通信詞客	李恍	明日過昭亭	崔成大
送崔北日本	李相顯	登全州城樓	崔成大
重陽贈客(2令)	崔成大	春州途中	崔成大
病青蓮社	崔成大	重到梧陂	崔成大
林將軍廟	洪世泰	登高寄弼叔	崔成大
題西行卷寄周伯	崔成大	重奉弼叔	崔成大
周伯有歸山意悵然續題	崔成大	臥病書懷	崔成大
鶴村野路騎牛	崔成大	閒居偶感	崔成大
梧村春思	崔成大	松都有感(2令)	崔成大
曉渡湘江	崔成大	感莊陵遺事	崔成大
送客春州	崔成大	奉使路中	崔成大
出郭曉行	崔成大	百濟吊古	崔成大
適湖中望江	崔成大	春日閒居	崔成大
南遊客路	崔成大	題扇	崔成大
湖澤春望	崔成大	長延縣(3令)	崔成大
寄遠	崔成大	縣舍有懷	崔成大
扶胥善謫調極哀怨	崔成大	晚步秋望(3令)	崔成大
送周伯南歸	崔成大	重渡熊江	崔成大
送淵翁	崔成大	到縣雨牕晚題	崔成大
送淵翁成歡丞	崔成大	久宦南峽羈旅情兼述風土	崔成大

觸熱山行(2首)	崔成大	鷹鳴二禽(2首)	崔成大
山縣憶士弘兼屬元鎮	崔成大	蝴蝶蟋蟀(2首)	崔成大
懷舊友子安	崔成大	送周伯適歸嶺南	崔成大
縣齋書情	崔成大	行至京都	崔成大
東行客路	崔成大	公弼宅櫻桃花盛開	崔成大
嘉春途中	崔成大	春州送別	崔成大
山城野行	崔成大	下峽口	崔成大
田家春詞	崔成大	江行	崔成大
寄京都諸友	崔成大	黃昏有感	崔成大
舟泛碧樓至練亭	崔成大	送從叔東遊(4首)	崔成大
騎淇驪村中小出	崔成大	題武城桂帖(2首)	崔成大
感題野花	崔成大	湖中感舊(2首)	崔成大
野外尋春	崔成大	登熊州江樓	崔成大
院店途中	崔成大	武城詞(5首)	崔成大
答幼能寄詩(3首)	崔成大	墨峽村舍	崔成大
野坐待人	崔成大	題沁州鎮海寺	崔成大
送朱溪太守	崔成大	吟答桂簡(5首)	崔成大
被選製誥	崔成大	客路過叢祠	崔成大
士弘在直月夜有懷	崔成大	禁直聽漏(2首)	崔成大
梧磯憶西遊	崔成大	秋陰直署(2首)	崔成大
贈柳子安逸	崔成大	直夜	崔成大
聞東湖泛舟	崔成大	騎省聽鶯	崔成大
慶幸坊花下有感	崔成大	翫禁月	崔成大
送客湖中	崔成大	歸路歷塘舊居	崔成大
陌上	崔成大	出關諸篇(7首)	崔成大
馬上	崔成大	送南元鎮赴湖南幕	崔成大
秋夜	崔成大	佐宣閣書懷	崔成大
南遊客路(6首)	崔成大	別熊州戲題	崔成大
林禽	崔成大	秋風感	崔成大

九日對酒屬聖方	崔成大	赴淇幕出國門	崔成大
題舊袍	崔成大	錦屏曲	崔成大
簡元鎮兼屬士欽聖方	崔成大	春堤詞	崔成大
喜元鎮來訪	崔成大	菱堤謠	崔成大
初到上茆	崔成大	淚線雙條詞	崔成大
縣齋獨坐	崔成大	江行	崔成大
茶女唱	崔成大	曉發龍安驛	崔成大
春遊仁智洞	崔成大	永明寺廢井	崔成大
仁智菴逢士欽話舊	崔成大	行到熙州	崔成大
上茆雜詠(2首)	崔成大	撫州書情	崔成大
獐川見月	崔成大	聞龜州歌	崔成大
九月有感	崔成大	上界畔城樓	崔成大
雨夜	崔成大	鴨河途中	崔成大
江樓南望憶舊	崔成大	登義州城	崔成大
湖路有感	崔成大	感題梧館	崔成大
縣市記見	崔成大	甄萱城歌-歌行	崔成大
雨夜對歌	崔成大	邕渠行	崔成大
仁智洞憶士欽同遊	崔成大	山丹花歌	崔成大
上茆投絨	崔成大	簪珥花歌	崔成大
梧塘雜感(5首)	崔成大	贈赤岸	미상
村田雜詠(5首)	崔成大	烏嶺	미상
馬上感隔牆桃花	崔成大	重陽	미상
春曉出歸	崔成大	送柳珣書記	李相顯
梧塘秋感(5首)	崔成大	送李鳳煥書記	李相顯
秋村雜詠(5首)	崔成大	向日本(3首)	李鳳煥
別長鬢太守	崔成大	西峰挽沈聖凝(9首)	西峰
野席醉書	崔成大	次人韻	미상
梧塘承憲職召命(2首)	崔成大	墨鵲	李恍
田家春詞(5首)	崔成大	梅花	李恍

挽人	李恍	趙士昂挽(2个)	李秉淵
無題	李恍	送尹景孺出疆(2个)	李秉淵
怨女草歌	崔成大	送通信書狀曹疇卿(2个)	李秉淵
黃葛辭	崔成大	送歸相出疆	李秉淵
臺前歌	崔成大	栢臺和韻	李秉淵
禿城歌	崔成大	又次	李秉淵
祁梁縣口	崔成大	送李侍郎春州	李秉淵
閒夜飲酒	崔成大	和權三宰重宇席韻(2个)	李秉淵
過郡郭	崔成大	送鶴城金使君	李秉淵
參禮別路	崔成大	送李鳳煥日本(2个)	李秉淵
送嶺客	崔成大	送侄靈山	李秉淵
江樓離別(3个)	崔成大	別池詩人	李秉淵
送春詞(5个)	崔成大	占絕句韻	李秉淵
清平山(4个)	崔成大	贈鄭謙齋	李秉淵
宿清平寺	崔成大	送崔三陟(4个)	李秉淵
暮城旅望	崔成大	古倭劍	任詡
出關適湖中	崔成大	別山僧	申城
送人日本	미상	次牧齋泛舟作	柳(女人)
朴淵(2个)	미상	關月詞(2个)	미상
無題(2个)	미상	南北見月異思(2个)	미상
峯哀(2个)	李秉淵	感故宅	姜栢
曹西園挽	李秉淵		
吳省庵挽(2个)	李秉淵		
哭嘯臯相公(2个)	李秉淵		
徐尙書溫叔輓	李秉淵		
錦平尉挽	李秉淵		
李參判稚和挽	李秉淵		
密昌君挽	李秉淵		
李金城英輔挽	李秉淵		

The value of literary materials of an anthology of Joseon Dynasty poems

Kim, Hyoung-so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 anthology of Joseon Dynasty poems. This anthology is supposed to be transcribed by Han kwang-wi(韓光璋) who was a writer in late Joseon Dynasty. The anthology have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this anthology is composed two part. One is Lee byeong-yeon(李秉淵)'s poems, and the other is Choi seong-dae(崔成大)'s poems. and other writer's poems are selected among two writer's poems. Total number of poems is 742. The selected writers are mostly person who lived in 18th century. Second, this anthology provide various informations about creative activities of writers who lived in 18th Joseon Dynasty. Third, this anthology is one of the most early works that shows 並世意識. 並世意識 means thought that regards contemporaries' writings as important. Forth, this anthology shows a sound basis on the intercourse of Lee byeong-yeon(李秉淵) and chinese writer Wi jeong-hui(魏廷喜). The last, this anthology provides a broaden view about literal activities of writers who lived in 18th Joseon Dynasty.

Keywords: anthology, Lee byeong-yeon(李秉淵), Choi seong-dae(崔成大), Wi jeong-hui(魏廷喜), Han kwang-wi(韓光璋), 並世意識, 18th century

접수일자: 2010. 3. 10 심사기간: 2010. 3. 10~2010. 5. 20 게재결정: 2010. 5. 20
